

“시 창작, 타인을 바라보는 시간
‘작은 목소리’는 시인의 역할”



학내 공간 부족 문제 대두돼, 공간 문제의 현황과 해결 방향은

2022년 5월 25일 수요일

대학주보

3년만에 찾아온 대동제…국제캠, 무대입장 관련 논란

이동건 기자 ehdrijs3589@knu.ac.kr
이태영 기자 ysmhip6@knu.ac.kr

코로나로 중단됐던 대동제가 3년 만에 돌아왔다. 서울캠퍼스(서울캠)에서는 ‘MASTER PEACE: Re, Play’가, 국제캠퍼스(국제캠)에서는 ‘경리해제’가 개최된다.

대동제는 양 캠퍼스에서 24일(화)부터 오는 26일(목)까지 3일간 진행된다. 학생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았던 초청 연예인의 경우 서울캠은 24일 ‘프로미스나인’, 최정훈(경영학 2011) 동문이 속해있는 ‘잔나비’로 공개됐다. 국제캠은 24일 ‘보라미유’, ‘현아’, 25일 ‘에일리’, 26일 ‘(여자)아이들’로 공개됐다. 서울캠 공연은 평화의전당에서, 국제캠 공연은 전자정보대학 뒤편에 위치한 노천극장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각 학과, 동아리 등에서 운영하는 체험 부스, 플리마켓 부스 등은 예년처럼 꾸려질 예정이다. 단, 현행 법상 부스 내에서 주류 판매는 금지된다.

서울캠은 노천극장과 청운관을 중심으로 부스가 꾸려질 예정이다. 스페이스21과 대운동장 사이에 푸드트럭이 배치되고, 대운동장 앞 계시판부터 문과대학관, 구 이과대학관 앞까지는 각 단과대학(단과대) 학생회, 동아리, 학생 자치 기구 등이 부스가 설치된다.

국제캠은 사색의 광장 건너편 주차장에 ▲총학생회 ▲전자정보대



3년만에 개최된 대면 대동제로 캠퍼스가 모처럼 활기를 띠었다.

권을 주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비난 여론이 확산됐다. 실제로 축제 비용에는 자치회비와 단과대학 학생회비가 사용되지만, 주된 비용은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

생과대에 재학 중인 20학번 A 씨는 “같은 등록금을 내고도 입장권 배부에 차이를 두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며 “특히 입장권을 소유한 1인이 외부인을 데려올 수 있다는 점에서 학생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학생이 외부인보다 못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학생회비가 축제 개최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일반 학생은 체감할 수 없기 때문에, 공정하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논란 속에서 타 단과대도 자치회비와 학생회비를 납부한 학생을 대상으로 입장 팔찌를 배부했다. 그러나 외국어대는 입장 팔찌의 40%를 자치회비 및 학생회비 납부 여부와 상관없이 배부했고, 국제대는 SNS 게시물을 통해 “축제 비용은 단과대학별로 분담하는 금액으로도 이뤄지기에 학생회비 납입자에게 우선적으로 티켓 분배를 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또 국제캠 총학은 “팔찌는 공연장 입장권이 아니며 팔찌의 역할은 무분별한 입장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됐다”며 해당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아울러 “팔찌를 소지한 본인만 (무대) 입장이 가능하다”라고 재공지했다.

학 ▲소프트융합과학대학 ▲국제대학(국제대)의 부스가 꾸려지며, 학생회관 앞에 중앙동아리연합회의 부스가 꾸려질 예정이다. 나머지 ▲공과대학 ▲외국어대학(외대) ▲생명과학대학(생과대) ▲예술디자인대학의 부스는 각 단과대 앞에 꾸려진다.

한편, 국제캠에서는 축제 무대 입장과 관련해 공정성 논란이 일기도 했다. 국제캠 총학생회(총학)는 SNS 게시물을 통해 “1인당 팔찌는 3개까지 수령 가능하며 팔찌 1개당 동반 1인까지 입장이 가능하다”며 “팔찌를 소지한 재학생은 우선 입장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

나 입장 팔찌의 배부 대상을 단과대마다 자체적으로 선정하면서 논란을 낳았다.

가장 큰 논란을 빚은 단과대는 생과대였다. 생과대 학생회는 배부 대상을 학생회비를 납부한 재학생으로 지정했다. 이에 교내 커뮤니티를 통해 “학생회비 납부자에게만 입장

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 3.0)에 선정됐다. 우리학교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LINC+ 사업에 선정돼 교육부로부터 40억 3천만 원을 지원받은 바 있다.

LINC 3.0은 대학과 산업체가 상생 발전하는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대학 산학연협력 종합 지원 사업이다. 기술혁신선도형, 수요맞춤성장형, 협력기반구축형으로 나눠진 일반대 3개 유형 가운데 우리학교는 수요맞춤성장형으로

이름을 올렸다.

수요맞춤성장형 사업은 산업체 및 미래 사회 수요에 맞는 인력 양성과 기업 지원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총 53개 대학이 선정된 해당 유형에서는 대학마다 평균 40억 원 내외를 지원받는다.

우리학교 LINC+ 사업단은 ▲3대 연계협력 클러스터 ▲미래혁신원 ▲지능형 산학협력 플랫폼 ▲지역특화산업 중점 지원센터 ▲사회맞춤형 교육과정 ▲산학협력 친화형 대학조직 개편과 제도혁신 ▲캡

퍼스 내 산학협력 생태계 ▲글로벌 산학협력 ▲지역사회 공헌 등 9가지 사업 계획을 기반으로 사업을 진행해왔다.

LINC+ 사업단은 “우리대학이 LINC+ 사업을 수행하면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뤘고 학생·교직원, 지역 사회 등 참여 구성원의 만족도도 높았다”며 “사업을 이어 나가게 돼 매우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우리학교는 LINC 3.0 사업을 위

롭게 수립했다. ‘문제해결형 협업형 인재 양성’, ‘산학연협력 선순환 체계 구축’, ‘상생발전 글로벌 네트워크 선도’, ‘포스트 팬데믹 시대의 뉴노멀 협력 모형’을 4대 목표로 이를 달성을 할 수 있는 분야별 세부 실행과제를 수립할 예정이다.

더불어 이전 LINC+ 사업에서 나아가 산학협력 비중 확대, 기술개발, 공동연구, 창업 확대, 유료 서비스를 통한 수익 창출과 대외 네트워크 확대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리학교 LINC3.0 사업 선정

강다은 기자 ekdms200202@knu.ac.kr

지난달 28일 우리학교가 ‘3단